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5, No. 5, 135-154, October 2014
DOI : dx.org/10.5723/KJCS.2014.35.5.135

www.childkorea.or.kr
pISSN1226-1688
eISSN2234-408X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 분석*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by Employment Status*

신나리(Nary Shin)[1)]
안재진(Jaejin Ahn)[2)]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with an infant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using the second through fourth wave data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performed to test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nstructs. Our results indicated that both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were consistent over time.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ross-lagged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their self-efficacy, rather than vice versa. No differences between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wer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structs.

Keywords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maternal parenting stress), 어머니의 자기효능감(maternal self-efficacy), 어머니의 취업여부(maternal employment status),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 본 논문은 2013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 논문은 2013년도 제4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의 일부임.
[1)]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2)]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aejin Ahn, 1342 Seongnam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E-mail : jjahn@gachon.ac.kr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산은 긍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출산 후 가족 내 역동은 크게 변화하며, 출산에 수반되는 일상의 변화는 가족구성원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Ahn, 2011). 특히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주된 책임을 어머니가 맡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어머니 개인의 안녕(well-being)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Abidin(1990)은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사건 속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 정의하고, 양육행동과 관련되는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들을 강조한 '스트레스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Abidin, 1992). 실제로 선행연구(Ahn, 2001; Crnic & Greenberg, 1990; Kim & Doh, 2004; Yoon & Cho, 201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모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나 무관심 등과 같이 부적절한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다.

특히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가족구성원의 사망이나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가족 내에서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생활사건과 결합하여 더욱 심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행동 특성을 순하거나 까다롭다고 지각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에 Abidin(1990)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개인의 내·외적 요구가 이를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할 때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Suh & Kim, 2012),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다룰 수 있다고 인지하는지에 따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대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Cherniss, 1993).

실제로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은 양육스트레스보다는 양육 실제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일관되게 밝혀져,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고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ucker, Gross, Fogg, Delaney, & Lapporte, 1998), 보다 민감하고 따뜻한 양육의 실제를 보였으며(Teti & Gelfand, 1991), 반응적인 반면(Stifter & Bono, 1998), 자기효능감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 권위주의적이거나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anders & Woolley, 2005). 즉, 자기효능감은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및 인지적 원천이 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양육행동이라는 영아기 어머니의 필수적인 행동의 수행 수준을 예언할 수 있다(Moon & Min, 2012).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 실제가 아닌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짐을 밝힌 바 있다(Cho & Park, 2012; Han, 2011; Kim & Kim, 2012; Kim, Kim, & Lee, 2012; Kwon, 2011; Suh & Kim, 2012). 이에 최근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의 경우 높은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가정하는 대신,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Lee,

Park, & Choi, 2010; Seo, 2004; Teti & Gelfand, 1991). 즉, 어머니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Moon과 Min(201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의 예측 변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 이외에 사회적 지원, 영아 기질, 아동의 발달수준을 함께 투입한 최근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밝혀진 점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서로 영향력을 주는 변인임이 일관되게 밝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은 횡단연구의 특성상 동일 시점의 자료를 이용해서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 도출을 시도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한 최근 연구는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보다는 두 변인이 양육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거나(Kim, 2012; Park & Moon, 2012), 빈곤 가정(Raikes & Thompson, 2005) 또는 조산아 가정(Woods, 2011)과 같이 양육스트레스 측면에서 취약한 가정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8년 출생한 집단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실시하여 4차년도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4차년도에 해당하는 조사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이후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이후의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그간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쌍방(non-recursive)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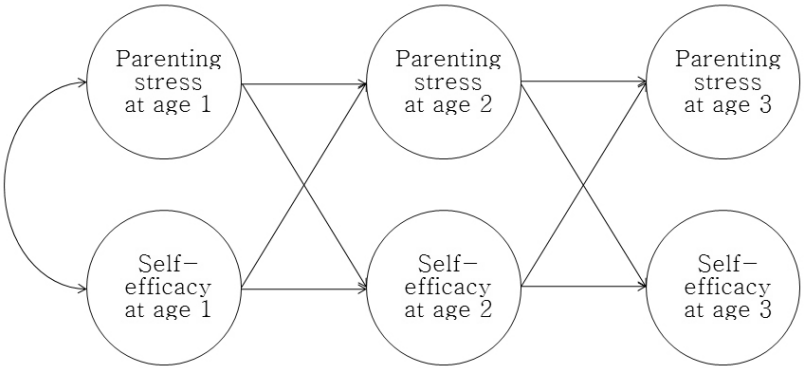
특히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가 양육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높으나(Lee & Chin, 2013; Yoon, Hwang, & Cho, 2009),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Jackson, 2000), 취업모에 한해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의미있게 밝혀지는 등(Sohn, 201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두 변인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Figure 1〉 Conceptual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연구문제 4>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상기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가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수준의 자료로,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해당연도 4월부터 7월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가구 중 표집된 2,079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듬해인 2차년도에 추적된 가구는 총 1,904가구였으며, 3차년도와 4차년도는 각각 1,802가구와 1,754가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집단을 비교하려는 연구목적을 위해 2~4차년도에 모두 연구에 참여한 가구 중 어머니가 3년 내내 취업을 유지한 집단과 계속해서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가구를 각각 선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취업을 유지한 392가구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871가구를 합쳐 총 1,263가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2차년도인 2009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어머니 연령의 경우 30대 초반으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한국아동패널에 참여 중인 자녀는 2차년도 당시 약 14개월로, 본 연구에서는 만1세, 만2세 및 만3세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종단적 특성이 분석되었다. 해당 자녀 성별의 경우 취업모의 경우 여아가, 미취업모 집단에서는 남아가 과반을 차지하여,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결혼상태의 경우 조사 참여 어머니의 대부분이 혼인상태였고, 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2009)

Characteristics	Working mothers		Non-working mothers		t or χ^2
	N	% or $M(SD)$	N	% or $M(SD)$	
Age of mother(Years)	392	32.4(3.3)	871	32.0(3.7)	1.54
Age of target child(Months)	392	14.1(1.1)	871	14.0(1.0)	1.85
Gender of target child(Boy)	186	47.4	449	51.5	1.82
(Girl)	206	52.6	442	48.5	
Marital status(Never married)	1	.3	1	.1	3.01
(Married)	390	99.5	869	99.8	
(Divorced)	1	.3	0	.0	
(Separated)	0	.0	1	.1	
Education(High school graduate or less)	65	16.8	304	35.1	75.13***
(2- or 3-year college graduate)	102	26.3	219	25.3	
(4-year college graduate)	177	46.5	321	37.1	
(Master degree or more)	44	11.3	22	2.5	
Number of children(One)	181	46.2	409	47.0	3.17
(Two)	174	44.4	364	41.8	
(Three)	36	9.2	88	10.1	
(Four or more)	1	.3	10	1.1	
Monthly household income(10,000 wons)	383	512.3(733.5)	845	384.4(574.9)	3.303**

**p < .01. ***p < .001.

구 내 자녀수는 1명 또는 2명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모의 경우 4년제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반수 이상이었고 고졸 이하의 경우는 약 17%에 불과한 반면, 미취업모의 경우 대졸에 이어 고졸 이하, 2/3년제 전문대 졸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 또한 취업모 가구의 경우 약 512만원으로 미취업모 가구의 384만원을 크게 상회하였다. 단, 취업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 표준편차가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월등히 큰 점을 고려하여 보면, 취업모 가구가 맞벌이에 해당하여 가구 소득 자체가 홑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가구가 다수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도구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어머니 및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필식 설문

조사, 그리고 아동 대상의 발달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대상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자료가 사용되었다.

1)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 (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을 기초로 Kim과 Kang(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5점)로 구성된 원 척도는 총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3개 요인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사용하고 있다. 원 도구의 해당 요인은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아동패널의 1, 2차년도 조사에서는 영아기 주양육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2개의 문항을 제외되어 총 10개 문항이, 3차년도부터는 제외된 2개 문항 중 한 문항[1]을 다시 포함되어 11개 문항이 해당 척도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4차년도 자료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10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원 도구의 내적합치도는 2차년도가 .85, 3차년도가 .86, 4차년도가 .8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한편,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항목은 이론모형에서 측정변수에 해당하게 되는데, 한 요인의 측정변수가 10개인 것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같이 항목 수가 많은 경우 추정해야할 요인계수의 수가 표본 수에 의해 과도해짐으로써, 실

〈Table 2〉 Parceled items of parenting stress scale

Item no.	Item statement	Parcel no.
1	I am not sure if I am a good parent.	parcel 1
2	I am not confident in bringing up my child the way a child should be brought up.	parcel 1
3	Sometimes, I feel that my child is behind other children because I am not good at playing the role of a parent.	parcel 1
4	I happen to feel like I want to get away from my child.	parcel 2
5	It has become difficult to be more intimate and warm to my child.	parcel 2
6	Nowadays, I am so confused by various and overwhelming information about parenting that I cannot choose.	parcel 3
7	After my child was born, I am not as happy as I was before.	parcel 2
8	The cost of rearing my child is not easy on my pocket.	parcel 3
9	It is hard seeing my child displaying emotionally unstable behaviors because I feel I am to blame.	parcel 1
10	I feel annoyed by my child begging me to play with them if I am tired.	parcel 2

1) 해당 문항은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임.

제 참인 모형을 기각할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 항목묶기를 사용하면 실제로 참인 모형의 기각 확률은 일반적인 수준인 .05 수준에 훨씬 근접하게 되므로(Bandalos, 2002),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시행하였다.

본 양육스트레스 척도와 같이 단일차원(unidimension)으로 구성된 척도의 항목묶기는 탐색적 요인분석이나 문항간 상관을 고려하는 방법 등의 전통적인 방법(Hall, Snell, & Foust, 1999) 이외에 문항별 요인계수를 고려한 항목묶기, 긍정-부정 항목묶기 및 무작위로 항목을 묶어 문항꾸러미를 만드는 방법(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까지 척도, 자료 및 추후 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가 가능하다.

먼저 본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경우 모두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긍정-부정 항목묶기는 불가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묶인 문항들의 논리적인 개연성과 이론적인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척도라도 항목묶기 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묶인 개별 문항꾸러미(parcel)의 내적일관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점(Kishton & Widaman, 1994)을 고려하여 문항 간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상관이 높은 항목들로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1, 2, 3, 9번 항목과 4, 5, 7, 10번 항목, 6, 8번 항목을 묶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묶인 개별 항목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2, 3, 9번 문항은 유능한 양육자로서의 지각과 자신감, 4, 5, 7, 10번 문항은 양육으로 인한 소진, 6, 8번 문항은 심리적 특성보다는 환경적 특성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판단되었다(Table 2 참조). 이에 상관계수에 근거하여 묶은 항목의 내용이 적절함과 동시에 측정변수의 수가 3개인 경우 모델 식별에 용이한 점에 착안하여, 3개 문항꾸러미 내 항목들의 평균을 잠재변수의 관측변수로 사용하였다. 3개 문항꾸러미로 묶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2차년도가 .73, 3차년도가 .76, 4차년도가 .76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2) 자기효능감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척도는 미국의 대표적인 패널연구인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중 Child Development Supplement(CDS)의 2차 조사에서 사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8)로서, 지필식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제작된 본 도구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다. 단, 원 도구의 문항은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와 같이 부정적인 진술로 진술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점수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도록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2차년도가 .82, 3차년도가 .82, 4차년도가 .81로 높은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적인 통계치와 상관계수, 내적합치

도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AMOS 19.0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실시하였으며,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세 시점에 걸친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에 앞서 세 시점 간 측정모형의 불변성 검증이 실시되었으며, 다집단 분석에 앞서서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집단 간의 측정모형의 동일성 검증이 선행되었다.

분석 과정에서 각 시점별로 양육스트레스 척도와 자기효능감 척도 중 일부 문항의 결측치가 발생한 사례는 사례별로 응답된 척도 문항들의 평균을 삽입하였다. 또한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의 추정방법으로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hood: FIML)을 적용하여 한 시점의 응답이 결측된 사례 또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χ^2 통계량과 CFI(Comparative Fit Index) 이외에 여러 적합도 지수 중 TLI(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수로 산출, 검토하였다. 이는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한 χ^2 통계량의 경우 본 연구와 같이 표본크기가 큰 경우 쉽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Kline, 2005),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적합도와 복잡성을 함께 고려하는 TLI와 RMSEA가 유용하다는 Hong(2000)의 제안에 근거한 것이다.

Ⅲ. 결과분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다음의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세 시점 모두 3점미만으로

〈Table 3〉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Variables	Age 1		Age 2		Age 3	
		N	*M*(*SD*)	*N*	*M*(*SD*)	*N*	*M*(*SD*)
Parenting stress	Working mothers	391	2.77(.62)	384	2.81(.61)	384	2.87(.62)
	Non-working mothers	870	2.88(.64)	861	2.96(.62)	853	2.96(.64)
	Total	1,261	2.84(.63)	1,245	2.92(.62)	1,237	2.93(.63)
	t	-3.11**		-3.88***		-2.45*	
Self-efficacy	Working mothers	391	3.71(.69)	384	3.67(.68)	384	3.65(.70)
	Non-working mothers	864	3.65(.71)	862	3.63(.75)	852	3.59(.75)
	Total	1,255	3.67(.71)	1,246	364(.73)	1,236	3.61(.73)
	t	-1.61		-.98		-1.39	

*p < .05. **p < .01. ***p < .001.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3점을 상회하여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보고되어 비교적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중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은 취업모와 미취업모간 유의미한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미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기효능감은 취업모 집단에서 미취업모에 비해 세 시점 모두 높은 수준이었으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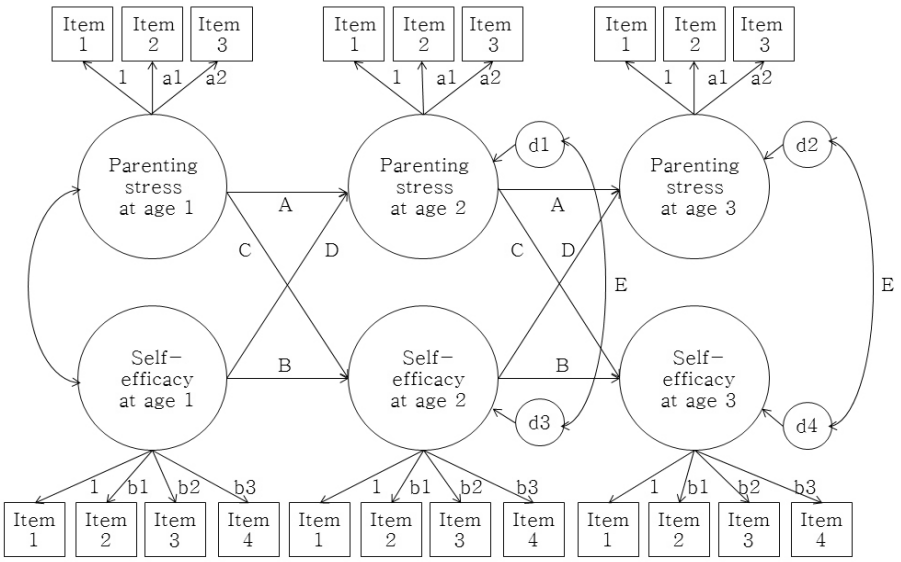
1) 측정불변성 검증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 비교를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종단적인 관계를 가정한 모형이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모두에게 적절하여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였으므로, 각 시점에서 잠재변인이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ong, Park과 Kim (2007)이 잠재변인이 포함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검증을 위해 사용한 절차를 적용하여, 총 8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모형1~모형3은 잠재변인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측정불변성(metric invariance over time)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으로, 이 중 모형1은 비제약모형, 모형2와 모형3은 요인계수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경쟁모형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4 및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a1과 a2를, 자기효능감은 b1, b2, b3을 세 시점 모두에서 동일하게 제약하여, 요인계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세 모형은 비교가 가능한 내재된(nested)

〈Table 4〉 Characteristics of nested models for comparison

Model	Characteristics	Imposed constraints
1	A baseline model with no constraint	
2	A model with same factor loadings of parenting stress indicators imposed at three time points	a1, a2
3	A model with same factor loadings of self-efficacy indicators imposed at three time points	b1, b2, b3
4	A model with same autoregressive coefficients of parenting stress imposed	A
5	A model with same autoregressive coefficients of self-efficacy imposed	B
6	A model with same cross-lagged coefficients of parenting stress imposed	C
7	A model with same cross-lagged coefficients of self-efficacy imposed	D
8	A model with same covariance coefficients between errors of latent endogenous variables at same time points imposed	E



Note. Autocorrelation paths among observed variables were omitted.

〈Figure 2〉 Equality constraints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between self-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Table 5〉 Goodness of fit indices of nested models

Groups	Models	χ^2	*df*	CFI	TLI	RMSEA	$\triangle\chi^2$
Working mothers (*N* = 392)	1	284.398	157	.966	.951	.046	-
	2	289.342	161	.966	.952	.045	$\triangle\chi^2(4) = 4.944$
	3	296.705	167	.966	.953	.045	$\triangle\chi^2(6) = 7.363$
	4	296.784	168	.966	.953	.044	$\triangle\chi^2(1) = .079$
	5	296.793	169	.966	.954	.044	$\triangle\chi^2(1) = .009$
	6	296.802	170	.966	.955	.044	$\triangle\chi^2(1) = .009$
	7	298.452	171	.966	.955	.044	$\triangle\chi^2(1) = 1.650$
	8	298.834	172	.967	.955	.043	$\triangle\chi^2(1) = .382$
Non-working mothers (*N* = 862)	1	407.687	157	.973	.960	.043	-
	2	410.773	161	.973	.961	.042	$\triangle\chi^2(4) = 3.086$
	3	412.972	167	.973	.963	.041	$\triangle\chi^2(6) = 2.199$
	4	414.883	168	.973	.961	.041	$\triangle\chi^2(1) = 1.911$
	5	417.015	169	.973	.963	.041	$\triangle\chi^2(1) = 2.132$
	6	419.361	170	.973	.963	.041	$\triangle\chi^2(1) = 2.346$
	7	419.846	171	.973	.963	.041	$\triangle\chi^2(1) = .485$
	8	419.847	172	.973	.963	.041	$\triangle\chi^2(1) = .001$

형태이므로, 모형1부터 모형3을 순차적으로 전 단계 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모두 순차적으로 제약을 가한 추가 모형들이 이전 모형들에 비해 χ^2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참조). 이에 시간에 따라 측정변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응답자들에 의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이 밝혀져, 시간의 따른 측정의 불변성이 성립되었다. 내재된 모형 간 χ^2 차이 검증 시 모형 간 차이가 유의미하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는 자유도가 큰 모형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Hong & You, 2004; Lee, 2009), 세 개의 모형 중 자유도가 가장 큰 모형3이 최적의 모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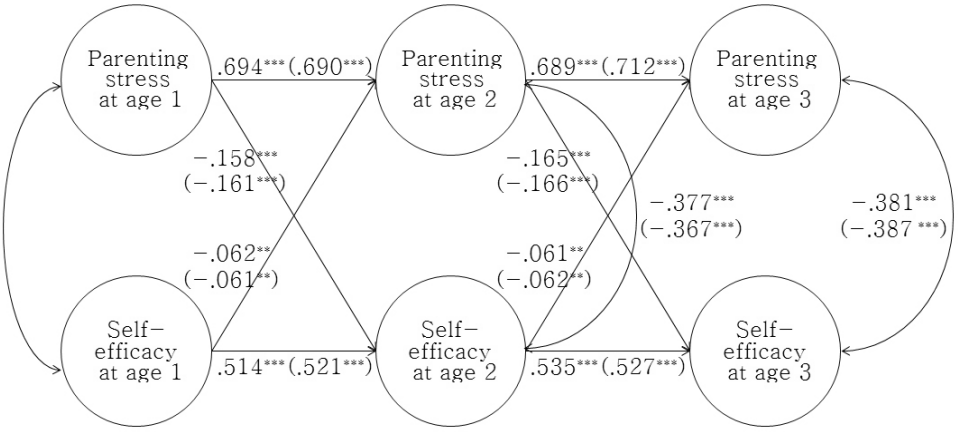
2) 형태동일성 검증

다음으로 모형4~모형8은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모형이 두 집단에 모두 적절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러한 가정을 의미하는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형3을 기저모형으로 사용하여 이론모형이 두 집단에 적절한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모형4와 모형5는 측정블변성이 성립된 모형에 자기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Figure 2에 제시된 계수 중 A와 B에 해당한다(Table 4 참조). 다음으로 모형6과 모형7은 두 변인의 교차지연 효과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를 평가한 동일화 제약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다음 시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C로, 자기효능감이 다음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D로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내생변수인 양육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의 시점별 오차가 동일한지 평가하는 모델은 모형8로, 동일하게 제약된 계수는 E로 제시되어 있다.

상기 5개의 경쟁모형을 내재된 순서에 따라 이전 모형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형4와 모형5의 동일화 제약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6과 모형7 또한 모델적합도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교차지연효과 또한 한 시점(t)이 이전 시점(t-1)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는 해당 시점(t)이 이후 시점(t+1)에 주는 영향력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8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형7에 비해 모델적합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오차 공분산 또한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두 집단 모두에서 적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CFI, TLI와 RMSEA의 경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빠지지 않고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자기회귀계수와 교차지연계수 및 오차 공분산이 동일하게 제약된 모형8의 모형 적합도 지수 또한 CFI와 TLI는 .90 이상, RMSEA는 .05 이하로 산출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적절한 수준(Hong, 2000)을 만족하였다. 이로써 동일화 제약을 통해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8이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적 인과관계의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간 비교를 위한 최종모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3) 자기회귀 교차지연 최종 모형

마지막으로 다음의 Figure 3에는 최종모형에 해당하는 모형8의 구조계수 추정치가 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중심으로 그 추정치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계수는 취업모 집단이 .694와 .689, 미취업모 집단이 .689와 .712로 모두



Note 1. Estimates are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2. Parentheses are non-working mothers' estimates.
3. Covariance coefficients between measurement errors are omitted.
$^{**}p < .01$. $^{***}p < .001$.

〈Figure 3〉 Parameter estimates of the final model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 또한 취업모 집단은 .514와 .535, 미취업모 집단은 .521과 .527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밝혀져,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지연효과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모두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에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졌으며, 마찬가지로 이전에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의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서로에게 인과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양육스트레스의 교차지연효과가 자기효능감의 교차지연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오차항 간 공분산 또한 유의미한 음의 관계인 것으로 산출되어, 잠재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잔차 간에 여전히 부적인 구조적 오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1) 집단간 측정동일성 검증

추정된 자기회귀계수 및 교차지연계수가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에 대한 검증에 해당하는 다집단 분석은 집단 간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across groups)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Myers, Calantone, Page 및 Talyor(2000)와 Mullen(1995)이 제시한 측정동일성 5단계를 기초로 Yo(2012)가 제시한 측정동일성 5단계의 검증 절차를 이용하여 검

〈Table 6〉 Tests for metric invariance across groups

Models	χ^2	*df*	CFI	TLI	RMSEA	$\triangle\chi^2$
1. Baseline model	686.424	353	.974	.966	.027	-
2. Factor loading invariance	697.804	358	.974	.966	.027	$\triangle\chi^2$(5) = 11.380
3. Factor covariance and factor variance invariance	708.035	374	.974	.968	.027	$\triangle\chi^2$(21) = 21.611
4. Factor loading, factor covariance and factor variance invariance	717.752	379	.974	.968	.027	$\triangle\chi^2$(26) = 31.328
5. Factor loading, factor covariance, factor variance and error variance invariance	727.855	386	.974	.968	.027	$\triangle\chi^2$(33) = 41.431

Note. Factor loadings of each latent variable were constrained to equality over time.

증을 실시하였다. 단, 일반적인 측정동일성 검증은 잠재변인 상관만을 전제하여 자유교차타당성을 탐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본 연구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에서는 시점1~시점3 간 측정불변성(metric invariance over time)이 기 검증되었으므로, 두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이 시점에 상관없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집단의 구조계수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모형1)의 경우 χ^2 = 686.424 (*df* = 353)였다. 이를 1단계 모형으로 삼고 다음으로 검증한 모형은 취업모와 미취업모 집단의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모형2)으로, 모형1과 모형2 간의 $\triangle\chi^2$는 11.380이었다. 이는 자유도가 15일 때 .05수준의 임계치인 24.996보다 작은 수치로,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두 집단 간 요인계수의 동일성이 검증되어, 동일한 측정변수에 대한 두 집단 간 요인에 부하되는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세 번째 모형은 공분산 제약모델인 모형으로(모형3), 잠재변인 간 공분산과 요인분산을 동일하게 고정한 모형이다. 모형3의 경우 기저모형인 모형1과의 $\triangle\chi^2$가 21.611(*df* = 21)로 산출되었는데, 자유도가 21일 때의 임계치가 32.671이므로 공분산 및 요인분산의 두 집단 간 동일성이 만족되어, 두 집단 간의 잠재변인 간 관련성과 측정변수의 신뢰도 일부의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의 모형4는 요인부하량과 공분산 및 요인분산이 모두 제약된 모형이며, 마지막 모형인 모형5는 모형4에 측정오차분산이 추가로 제약된 모형이다. 이 두 모형 모두 기저모형과의 χ^2의 차이가 해당 자유도의 임계치보다 작게 산출되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6 참조). 특히 모형5에서 추가된 측정오차분산의 동일성으로 인해, 두 집단 간 측정변수의 신뢰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만족되어,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다집단 분석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확보됨에 따라 다집단 분석을 위한 가정이 만족되어, Hong, Park과 Kim(2007)이 사용한 다집단 분석의 절차를 사용하여 최종모형을 검증하였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종모형 중

〈Table 7〉 Multigroup analyses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Model	χ^2	*df*	CFI	TLI	RMSEA	$\triangle\chi^2$
1. Baseline model[1)]	718.788	344	.971	.961	.029	-
2. Path A[2)] constrained model	718.800	345	.971	.961	.029	$\triangle\chi^2(1)$ = .002
3. Path B constrained model	720.890	345	.971	.961	.029	$\triangle\chi^2(1)$ = 2.102
4. Path C constrained model	719.212	345	.971	.961	.029	$\triangle\chi^2(1)$ = .424
5. Path D constrained model	719.030	345	.971	.961	.029	$\triangle\chi^2(1)$ = .242
6. Path E constrained model	727.864	345	.970	.960	.030	$\triangle\chi^2(1)$ = 9.076

Note 1. Factor loadings of each latent variable were constrained to equality over time.
2. Labels of paths are indicated in Figure 2.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모형2)과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모형3)의 경우, 모두 이전 모형과 비교 시 χ^2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로써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효과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다음 시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모형4)와 자기효능감이 다음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모형5)에 추가적인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 그 결과 자유도 1일 때 .05 수준의 임계치인 3.841보다 $\triangle\chi^2$의 값이 작게 산출되어, 모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두 변인의 교차지연효과 또한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의 오차공분산을 제약한 마지막 모형(모형6)의 경우 전 단계 모형과의 차가 $\triangle\chi^2(1)$ = 9.076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자유도 1일 때 .05 수준의 임계치인 3.841보다 큰 수치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 효과와 교차지연 효과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 두 잠재변인의 오차 간에는 체계적인 변량이 존재하며, 두 집단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Ⅳ. 논의 및 결론

그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그들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는 부정적임이 지속적으로 밝혀졌으나,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 주로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두 변인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의 인과관계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3년에 걸친 종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안정성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그들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Cho & Park, 2012; Han, 2011; Kim & Kim, 2012; Kim, Kim, & Lee, 2012; Kwon, 2011; Suh & Kim, 2012)와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Moon & Min, 2012)를 동시에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상호 인과관계를 종단자료 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혼재되었던 양육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 간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하는 주요 변인으로 검증되었던 기존의 연구 결과(Lee, Park, & Choi, 2010; Seo, 2004; Teti & Gelfand, 1991)를 보다 의미있게 해석하도록 돕는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매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육스트레스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에는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시간에 따른 안정성 뿐만 아니라 횡단자료 상에서의 집단 간 차이도 취업모와 미취업모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양육스트레스(Lee & Chin, 2013; Yoon et al., 2009) 및 자기효능감(Jackson, 2000)에 차이가 있다는 기존 횡단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 효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 과정의 어느 한 시점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내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 효과가 취업여부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실제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양육지원 정책은 취업모의 대리양육을 도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질 제고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 중 2012년 전면 실시된 영아대상 무상보육으로 인해 2012년 현재 0세부터 2세까지의 연령별 어린이집 등록 영아 수는 각각 177,157명, 321,716명, 372,81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이러한 현황을 연령별 인구수 대비로 살펴보면, 0세의 37.64%가, 1세 68.31%가, 그리고 2세의 경우는 무려 83.54%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동년도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49.7%에 불과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가정 내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취업이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의 주된 이유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전국실태조사 결과 만1세와 만2세의 어머니 중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의 비율이 높았으며, 0세의 경우만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가 47.1%, 미취업은 43.3%로 취업모의 비율이 미취업모의 비율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uh & Kim, 2012). 즉,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동안 대리양육자가 요

구되는 상황보다는 영아를 둔 미취업모 가정에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Suh와 Kim(2012)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아의 경우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되는 이유로 부모가 돌보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25.6%인데 이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1%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가 필히 요구되지 않는 가정에서 영아인 자녀 양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생애 초기에 기관에서 장시간 대리양육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만연함에 따라, 미취업모의 불필요한 보육서비스 이용을 그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비판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영아기부터 시작된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 전반까지 상대적으로 안정되며,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차이 또한 없다는 점은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연령이나 절대적인 양육시간에 따라 연동하는 디스트레스라기 보다는 개별 양육자의 심리적이고 정성적인 특성에 가까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서 미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취업모의 양육지원 요구와 같이 중요한 아젠다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되, 현재 양육지원 서비스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제도화됨으로써 미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부적절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을 취업모가 아닌 미취업모까지 다변화하여 어머니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취업모를 위한 육아나눔터, 공동육아, 놀이집단(play group) 등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발굴, 확대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정책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또한 자기회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가 양육스트레스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회귀계수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은 자기효능감의 증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대적인 위치가 상대적으로 유동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Hong & You, 2004). 실제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양육 실제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일관되게 밝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Sanders & Woolley, 2005; Stifter & Bono 1998; Tucker, Gross, Fogg, Delaney, & Lapporte, 1998), 양육스트레스에 비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각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덜 지속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이 양육 이외의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에 비해 보다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노력은 보육사업 확대 등의 형태로 지속적인 정책의 아젠다가 되어왔었던 것에 반해, 어머니가 자녀의 생애 초기부터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을 잃지 않음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은 양육정책의 주된 초점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인 양육스트레스 경감 노력과 함께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및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 실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기회귀 효과가 영아기부터 안정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중재의 시점 또한 가급적 빠를수록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여부에 따라 상관이 없다는 점은 자기효능감이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에게 의미 있는 특성임을 시사하므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취업 여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효능감이 어떤 것인지 세분화, 특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에는 교차지연 효과가 존재하였다. 즉,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경우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적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교차지연 효과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영아를 둔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아동양육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인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이것이 다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악순환의 경로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영아를 양육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종단적 효과는 검토하였으나, 실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같은 실제 양육에 미치는 순환적 관계까지 연구의 범위로 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양육실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의 차이는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오차항 간 공분산이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두 변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변량 중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변량이 존재하며, 이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집단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쌍방관계가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 반해, 영아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시기 어머니가 경험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광범위한 변인 탐색을 통해, 이 시기 양육의 실제와 지원 방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References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Ahn, J. J. (2011). The effect of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in early year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marital relationship.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5,* 127-158.

Ahn, J. Y. (2001).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Cherniss, C. (1993). Role of professional self-efficacy in the etiology and amelioration of burnout. In W. B. Schaufeli, C. Maslach, & T. Marek (Eds), *Professional burn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research* (pp. 135-149).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Cho, S. H., & Park, S. Y. (2012). Marital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with infant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3), 505-524.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Hall, R. J., Snell, A. F., & Foust, M. S. (1999). Item parceling strategies in SEM: Investigating the subtle effects of unmodeled secondary construct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3), 233-256.

Han, S. W. (2011).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giving self-efficacy, parental stress and maternal sensitivit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2), 145-161.

Hofferth, S. L., Davis-Kean, P., Davis. J., & Finkelstein, J. (1998).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97: User guide.* Retrieved November 11, 2006, from http://www.isr.umich.edu/src/child-development/home.htm/

Hong, S.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161-177.

Hong, S., & You, S. (2004).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 381-392.

Hong, S. H., Park, M. S., & Kim, W. J. (2007).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1), 129-143.

Jackson, A. P. (2000). Matern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influence on stress and parenting among single black mothers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Issues, 21*(3), 3-16.

Kim, G. H., & Kang, H. 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5), 141-150.

Kim, H. R., & Kim, J. K. (2012). Effect on parenting stress of children's characteristics, emotionality and mother's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8*(3), 53-67.

Kim, J. H. (2012). A path analysis of social support, marital conflict, self-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i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f infa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3*(9), 3924-3933.

Kim, K. S., Kim, S., & Lee, W. K. (2012).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postpartum fatigue and parenting stress on postpartum, depression.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6(2), 195-211.

Kim, M. H., & Doh, H. S. (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79-298.

Kishton, J. M., & Widaman, K. F. (1994). Unidimensional versus domain representative parceling of questionnaire items: An empirical ex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3), 757-765.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Statistics on child care.* Seoul: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won, M. K. (2011).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2), 19-41.

Lee, E. J. (2009).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t behaviors and affiliation with delinquent peers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20*(1), 141-171.

Lee, I. H., Park, J. E., & Choi, S. Y.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Child Education, 19*(4), 81-91.

Lee, Y. J., & Chin, M. J. (2013). Social capital and parental stress of marri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2), 229-239.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3), 451-464.

Moon, Y. K., & Min, H. S. (2012). The effects of infant's temperament, development,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infant mother's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1), 59-70.

Mullen, M. R. (1995). Diagnosing measurement equivalence in cross-national resear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 573-596.

Myers, M. B., Calantone, R. J., Page, T., & Talyor, C. R. (2000). Academic insight: An application of multiple-group causal models in assessing cross-cultural measurement equival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8*(4), 108-121.

Park, H. J., & Moon, H. J. (2012). The effects of a mother's guilty conscience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8*(2), 121-137.

Raikes, H. A., & Thompson, R. A. (2005).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3), 177-190.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Seo, S. J. (2004). Maternal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quality of parent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4), 11-27.

Sohn, S. M. (2012).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31-357.

Stifter, C. A., & Bono, M. A. (1998). The effect of infant colic on maternal self-perceptions and mother-infant attachment.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4*, 339-351.

Suh, J. H., & Kim, J. K. (2012).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fancy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3*, 101-121.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Tucker, S., Gross, D., Fogg, L., Delaney, K., & Lapporte, R. (1998). The long-term efficacy of a behavioral parent training intervention for families with 2-year-old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1,* 199-210.

Woods, K. (2011). Examining the effect of medical risk, parental stress, and self-efficacy on parent behaviors and home environment of premature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Nebraska, USA.

Yo, J. (2012). *Concepts and understand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narae.

Yoon, J., & Cho, H. (2012). Structural modeling of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7*(2), 111-119.

Yoon, J., Hwang, R. I., & Cho, H. H. (2009).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4), 294-302.

Received July 31, 2014
Revision received September 23, 2014
Accepted October 14, 2014